4월의 열병식장에 굽이친 조선의 억센 힘과 위용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은 온 나라, 전세계에 세찬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지금껏 세상에서 보지 못한 특색있고 완벽한 최상의 열병식을 보면서 누구나 조선의 무장력, 조선의 힘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들을 터치고있다.

만방에 과시된 최강의 무력

90년은 반만년의 오랜 우리 민족사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한세기도 채 안되는 이 90년동안에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은 이루 형언할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장성강화되였다.

90년전 조선인민혁명군이 조직되던 당시의 무장력은 보병총 100여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민무장화가 실현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국의 무력은 세계가 공인하는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세인이 놀라고 감탄하는 조선의 군대는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이다. 이 공화국무력의 사상정신적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것이다.

그 뿌리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 조선인민혁명군에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백두밀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던 나날에 창조된 백두산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은 공화국의 창건이래 줄기차게 계승되여 혁명강군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게 하고있다.

뿌리와 전통이 위대하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사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된 영웅적조선인민군.

이번 열병식에서도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공화국무력의 고상한 풍모와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온 열병광장은 삽시에 뜨거운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으며 열병식참가자들이 터치는 수령흠모의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 열렬한 흠모의 마음은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병사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따뜻이 위해주고 돌봐주는 위대한 사랑,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에까지 서슴없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이 뜨거운 헌신에 진심으로 매혹된 인민군장병들이다.

그이께서 오시면 저저마다 그 품에 안겨들고 떠나가실 때에는 너무도 아쉬워 허리치는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목메여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잊지 못할 화폭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정녕 자기 최고사령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답례하시는 열병광장 주석단앞을 지나며 그이를 우러러 만세를 목청껏 웨치고 또 웨치는것이다.

하기에 열병식을 참관한 사람들도, TV로 본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도 《이런 강철의 대오가 있어 우리는 승리한다.》, 《그처럼 잘 째인 열병식, 그토록 씩씩하고 기백넘친 군인들의 모습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자기 최고사령관을 그토록 신뢰하고 따르는 군대는 오직 조선인민군밖에 없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세계최강의 병기까지 틀어쥐였으니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격정의 찬사를 련이어 터치였다.

공화국무력은 무장장비로 보나, 잘 째인 규률과 전투동원태세로 보나 모든 면에서 흠잡을데가 없는 최정예 혁명무력이다.

이번에 열병식광장에 펼쳐진 각 군종, 병종들의 기백넘친 행진은 공화국무력의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최정예사단, 려단들의 군기를 앞세우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종대 장병들이 떨쳐입은 례복과 전투복, 휴대한 장구류들은 공화국무력의 무장장비현대화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도보열병종대에 이어 출현한 기계화종대는 주체조선의 절대적힘을 누구나 느낄수 있게 하여주었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종대를 선두로 하여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 임의의 순간에 선제적인 련속타격으로 초토화할수 있는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종대, 하늘과 땅, 바다, 우주의 그 어느 공간에서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능히 대응해줄수 있고 적을 단호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수행능력을 과시하는 전략미싸일종대들은 주체조선의 군사적강세를 폐부로 느낄수 있게 하여주었다.

특히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지난 3월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올랐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어마어마한 모습은 조선이 비축한 거대한 힘, 무진막강한 군력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만민이 우러르는 김정은원수

이번 열병식에서 온 겨레와 세인의 뜨거운 시선을 모은것은 광장주석단에 서시여 열병부대들의 사열을 받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흰색의 원수복을 입으시고 열병광장에 나오시였다.

온 광장이 그 빛발에 더욱 환해지는것같았다. 사람들 누구나 격정과 흥분을 터치였다.

《원수복을 입으신 천출명장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이 가슴에 〈쩡!〉 하고 울리는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이는 조선의 힘이다!〉라는 웨침이였습니다.》

《그이의 영상을 뵈옵는 순간 민족의 원수, 불세출의 령장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에 차고넘쳤습니다.》

원수복을 입으시고 승리자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례하시던 우리의 장군.

저 위풍당당한 모습 우리 어디서 또 뵈웠던가.

그 모습은 분명 근 70년전 전승의 기쁨이 차넘치는 열병식주석단에서 원수복을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드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모습이였다.

30년전 열병식대오앞에서 저력있는 음성으로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힘찬 고무격려를 보내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상그대로였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장군님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총포성없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하다면 김정은원수님은 어떤분이신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지난 10년간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 애민헌신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주체조선을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내세우시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힘있게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혁명이 이를 요구하며 후손만대의 장래가 이에 달려있다고.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국가와 인민을 이끌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최강의 군력을 키워주시고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진정 조선의 태양, 민족의 은인, 불세출의 령장이시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천하제일명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흔들림없이 무궁한 영광과 승리만을 맞이하리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세상에 없는 황홀한 열병식을 보고

천출명장을 모신 끝없는 긍지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뵈옵는 순간 그이는 우리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심을 폐부로 더욱 절감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무기들을 보유한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솟아오를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그이께서 국가방위를 위한 주체무기개발완성을 위하여 사생결단의 의지로 험로역경을 앞장서 헤치시였기에 오늘 이 장엄한 화폭이 펼쳐질수 있은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강세는 보다 확실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그이는 조선의 힘이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심 동 철

마음이 든든하다

4월의 열병광장을 누비며 보무당당히 지나가는 공화국의 막강한 무장력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런 최강의 무장력이 지켜선 우리 공화국을 그 누가 감히 넘겨다볼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백승의 력사만을 펼쳐온 공화국이 오늘은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최강의 국력을 떨쳐가고있다.

열병식을 보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족의 성원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였다.

존엄높은 강국의 공민된 긍지를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 유 성

황홀하고 특색있는 열병식

정말 훌륭한 열병식이였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열병식에 나의 온넋이 끌리웠었다. 세상에 이처럼 황홀하고 특색있고 잘 째인 완벽한 열병식이 또 있겠는가.

이런 성대한 열병식은 탁월한 위인의 손길아래서만 마련될수 있는것이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강산도 날마다 더욱 희한하게 변하고 우리 혁명적무장력의 모습, 열병식광경도 더더욱 강용해지고있다.

정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해주시는 창조의 거장,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부장 김 철 수

시

영광을 드리노라 김정은원수이시여

리 창 식

눈부시다
온 우주를 향해 빛뿌리시듯
해빛같은 미소 지으시고
4월의 뜻깊은 열병광장에서
손들어 답례하시는 우리의 태양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의 전승신화 창조하시고
열병식주석단에서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처럼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민의 밝은 래일을 축복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이시여

우러러보아 어려와라
남들 같으면 열백번 주저앉았을
제국주의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
조국과 인민을 위해
원수님 헤쳐오신 천신만고의 날과 날들이

정녕 갈길을 가셨던가
터질듯한 긴장이 서린 최전연
자그마한 목선으로 파도를 헤치시며
차디찬 바다물에 온몸을 적시시며
그이 찾고찾으신 최전방초소들

TV로 보면서도 가슴 서늘해지던
위험천만한 발사현장들
한밤중에도 가시고 이른새벽에도 가시고
무더운 삼복철 차디찬 엄동설한에도 가시고
그렇게 가신 길 천리던가 만리던가

그 길에서 강해졌다
제국주의폭제를 짓부시며
그 길에서 태여났다
세상에 없는 조선식절대병기들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화성포

아 천하제일장군을 우러러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오
가슴에 넘치는 자부심이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다
있다면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것

경의를 드리노라
민족만대의 영원한 보검을 주시여
부국강병의 새 력사를 펼치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이시여
인민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노라

형토의 천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탁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언에는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거세찬 대고조진군은 전체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시는 그이의 비상한 정치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현실이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하고있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였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해발 1 360여m나 되는 대화봉정점에서부터 40~120m의 폭을 가진 초급, 중급, 고급스키주로들과 삭도, 눈포를 쏘는데 필요한 시설들, 호텔과 숙소, 지하주차장과 직승기착륙장 등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규모가 큰 스키장을 10년동안 건설한다고 하는데 인민군대에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 모든 대상공사를 1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군군인들이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도 영웅적위훈을 세우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였다.

몸소 산세험한 건설장을 찾으시고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믿음의 말씀은 그대로 인민군군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게 한 원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보시면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휘몰아치고있는 이 혁신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하시였다.

그리하여 얼마후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다시한번 비약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에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앞당겨 끌내기 위한 비결은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이룩한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에서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고난과 시련앞에서 후퇴나 방어가 아니라 인민들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애국의 대진군을 전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이 구현된 호소문은 전체 인민을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게 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마식령속도는 그후 새로운 조선속도를 련속 탄생시키는 기적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인민들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하게 하였다.

건설부문에서만도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과학자살림집들과 병원, 과학연구기지들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같으면 몇년동안에 하여야 할 방대한 과제를 2013년 한해에 다 끌내는 그야말로 건설의 번영기를 펼쳐놓았고 수산부문에서는 보기드문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라는 희한한 풍경을 펼치였다.

그해에 이어 공화국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남들은 몇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불과 4년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으며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선경거리,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워 자기의 꿈과 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웠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부터 공화국인민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어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되는 사회주의강국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강 영 진